

第115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開會式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1年 10月 10日(水) 午前 11時05分 開式

第115回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 대한 敬禮
- 1. 愛國歌 齊唱
- 1.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11時05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第115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壇上의 國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金以煥 존경하고 親愛하는 우리 宗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盧張鐸 副區廳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이 한껏 풍요로움을 뽐내는 수확과 감사의 계절인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 지난 임사회 이후 달포만에 개최되는 제115회 임사회

에서 모두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됩니다. 지난주는 누구에게나 반갑게 찾아오는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이며 3천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한가위 연휴를 모두다 편안하고 즐겁게 보냈으리라 생각되나 경기침체와 미국에 대한 테러 여파로 국·내외적으로 불안과 장기불황이 예고된 탓인지 어쩐지 마음이 그리 밝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었그제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제와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도 불가피하게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높은 비율의 고학력 실업자수 증가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도 금년 들어 몇 개월째 계속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에 대한 보복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사태를 맞아 모든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IMF차입금 잔액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경제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또다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때의 IMF 위기 하에서의 절박한 심정을 되새기며 건전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특히 전량 외국에서 들어오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소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절약이 절실히 요구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우리 의회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개원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어 3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 의회는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몇 개 회의장과 부속사무실들을 개원될 때부터 현재까지 구청건물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의회청사이자 회의장의 경우 공간이 너무 비좁아 회의진행의 방청을 원하는 방청객에 대해 통제를 하여야만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앉아서 사무를 볼 수 있는 변변한 사무실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자치구의회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회청사를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 어렵게 구청측과 협의하여 우리 의회가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3층 회의실 확장과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의정연구실, 민원인 접견실 등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취임시 약속했던 의회 위상 제고와 우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을 돕기 위해 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지도 어언 10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령들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부분의 권한들을 중앙정부가 집권하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의 경우 대부분이 국세로 걷히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역발전에 저해(沮害)요

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마저 해결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7%에 불과하고 이중 79%의 195개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재정불균형이 아주 심하여 서울 강남의 일부 구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초과되는가 하면, 서울 강북의 대부분 구는 50% 내외이므로 서울의 경우도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서울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의 조속한 세목교환이 이뤄져야 함을 지난달 초에 열린 「전국 시·군·구 의장단」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본인은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는 제115회 임시회에서는 동료의원 모두가 주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第115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18分 閉式)

○ 出席議員數 18人

○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保 健 所 長 李 星 世

